왕사성의 비극, 정토를 알리다



원욱 스님의 경전산책

㉗ 정토삼부경 3 〈관무량수경(觀無量壽經)〉 1

우리들의 파라다이스. 극락은 어떤 곳인지 〈아미타경〉으로 살펴보고, 그 곳엔 누가 있어 우리를 이끌어주는지는 〈무량수경〉으로 살펴봤다. 이제 그곳엔 어떻게 갈 수 있는지 방법을 알려주는 〈관무량수경〉을 만나 볼 차례다.

극락 가는 길을 알려주는 로드맵은 절대로 그냥 만들어 진 것이 아니다. '왕사성의 비극' 이란 타이틀을 지닌 슬픈 이야기가 그 배경이 되고 있다.

부처님 당시 가장 강력한 나라는 마가다국으로 주변국을 이끌고 있었다. 주변국인 가필라국의 정반왕은 후계자 싯다르타, 곡반왕은 데바닷다가 태어났지만 마가다국의 빔비사라왕은 후계자를 얻지 못해 노심초사한다. 답답한 마음에 점술가를 만나 비부리산에서 수도하는 이를 잘 공양하면 그가 왕자로 태어날 것이라는 말을 듣고 즉시 찾아가 모든 지원을 다 하겠다고 말한다. 그리고 단도직입적으로 언제 죽어 인연을 맺을 것인가 묻자 그 선인은 3년이라 말하지만 왕은 그 때까지 기다릴 수 없었다. 결국 그날 밤 선인을 죽였다.

그 날로 왕비 위제희에게 태기가 있어 열 달 후에 탄생하니 그가 바로 아사세다. 점술가들은 이 아기와 대왕은 원한이 서려있다는 말을 듣고 왕은 깜짝 놀란다. 그 선인이었다. 왕은 이성을 잃고 아이를 죽이려 다양한 방법을 쓰지만 번번이 누군가의 도움으로 살아났다. 마지막에 아이의 요람을 누각에서 떨어뜨렸지만 또 살아난다. 그 때 입은 상처로 손가락이 부러졌다. 고통으로 울고 있는 어린 아들을 보며 빔비사라왕도 아이를 품에 안고 함께 울며 공포를 잊고 성심을 다해 잘 길러보리라 마음먹는다.

그 사이 카필라국의 싯다르타는 출가하여 부처님이 되고, 데바닷다도 출가했다. 데바닷다는 총명해 부처님의 가르침을 받아 훌륭한 제자가 되었다. 그런데 부처님이 자신을 후계자로 지목할 줄 알았건만 가섭을 비롯한 십대제자가 그 뒤를 잇게 되자 실망한 데바닷다는 자신을 후원할 세력으로 아사세를 마음에 둔다. 그리고 아사세에게 지난 과거를 들려주어 왕위찬탈사건의 배후가 되었다. 부처님의 후원세력인 빔비사라를 무너뜨리고 새로운 왕 아사세의 왕사(王師)가 되기 위해서다. 그동안 아사세는 훌륭하게 장성했고 마음도 비단결처럼 고왔다. 그런 아사세에게 데바닷다는 과거의 모든 일들을 말하며 아버지 빔비사라가 너를 죽이려 했다고 하자 잠자고 있던 원한이 일어나 아버지를 잡아 일곱 겹으로 된 감옥에 가두며 왕위 찬탈을 감행한다. 어머니 위제희는 비통한 마음으로 왕을 면회를 갔다가 굶겨 죽이려 한다는 것을 알고 자신의 장신구와 온 몸에 먹을 것을 바르고 담아가지고 면회를 다녔다. 얼마 지나지 않아 발각되어 결국 자신도 감옥에 갇히는 신세가 되고 만다. 그도 그럴밖에, 왕위를 내려놓으니 격무에 시달릴 일 없고, 음식도 절식하니 저절로 다이어트도 되어 몸이 청량해진 것이 아사세를 분노케 했다.

한 나라의 왕과 왕비가 졸지에 자식의 손에 이 같이 되니 부끄러움에 빔비사라왕은 부처님이 계신 영축산을 바라보며 간청한다. 나의 친구 목련존자를 보내달라, 그에게 8계를 받고 싶다고 하자 부처님은 신통이 있는 목련을 보내 계를 받게 하고, 부루나를 보내 21일간 설법을 듣게 한다. 위제희는 아들이 자신을 죽이겠다고 칼을 들고 설쳐대는 그 끔찍한 광경이 자꾸 떠올라 옛 선인을 죽여 받는 과보임을 느낄 수 있었다. 위제희는 부처님께 청하여 목련과 아난을 보내달라고 애원한다. 부처님은 목련과 아난을 보내고 뒤 따라 가신다. 위제희는 부처님이 오신 것을 보고 너무 감동하여 엎드려 눈물만 흘렸다. 정신 차리고 보니 부처님 계신 곳이라 감옥임에도 하늘에서 꽃비가 내리고 신들이 보호하고 있었다.

위제희는 사람을 죽여 자식을 얻은 악업을 뉘우치며 이제 머지않아 여기서 죽을텐데 다음 세상에선 이런 고통 속에 살기 싫다고 한다. 행복만이 넘치는 세상이 있기는 하냐고 하면서 있으면 보여달라고 한다. 부처님은 위제희를 위해 미간의 백호상에서 광명을 놓아 수 없이 많은 정토(淨土)를 보여주며 그 중에서 맘에 드는 정토를 고르라고 한다.

"거룩하신 부처님, 너무 감사합니다. 부처님이 보여주시는 이 모든 세계는 다 청정하고 이를 데 없이 광명으로 넘치지만 저는 그 중에서도 특히 아미타불이 계신 극락세계가 너무 맘에 듭니다. 저 거기에 태어나게 해주세요. 제가 거기가려면 어떻게 마음을 먹고, 어떤 가르침을 따라 행해야 하는지 부디 자비를 내리시어 가르쳐주소서!" 〈계속〉

〈서울 반야사 주지〉

초발심자 이끄는 새로운 길



김원수의 〈금강경〉 강의

㉖ 성공의 로드맵

우리나라 불자는 수행하면 으레 간화선 수행을 연상합니다. 간화선은 지금으로부터 약 1000여 년 전 중국의 대혜 종고 스님으로부터 우리나라에 전래된 수행법인데, 그 뿌리는 달마대사로부터 시작된 조사선에서 비롯되었다 하겠습니다. 조사선은 불립문자(不立文字) 교외별전(敎外別傳) 직지인심(直指人心) 견성성불(見性成佛)의 말씀처럼 마음 닦아 밝아지는 핵심을 곧바로 집어내는 수행을 통하여 한달음에 성불의 길로 들어가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돈적(頓的) 수행법입니다.

간화선은 초발심 때에는 지극한 참회도 하고, 부처님께서 제정하신 계율을 성심껏 지니기도 하지만, 화두 참구로 홀연히 마음이 열리면 참회할 죄나 지켜야 할 계가 본래 없음을 깨닫고는 점수(漸修, 점차 깨닫는 수행)의 체계를 뛰어넘어 부처님의 경지로 단숨에 들어가는 특징이 있다 하겠습니다.

이처럼 소위 돈적 수행은 한달음에 부처가 되는 수행이기에, 수행 중 별다른 역경 없이 부처님 세계에 진입하는 최상근기 불자에게는 별문제가 없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수행 과정에서 수많은 역경을 만나게 되는 중하근기 불자들이 간화선 수행을 할 경우에, 이러한 역경에 대한 처방이나 지침을 찾을 수 없어, 자칫 잘못하면 일생을 방황하다 변변한 깨달음도 얻지 못하며 고생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간화선과 같은 돈적(頓的) 수행의 경우 종종 그 수행 과정이 생략되고 수행의 로드맵(road map)이 무시될 수 있다는 점에 그 문제가 있다고 해야 하겠습니다.

선지식이 이끌어주지 않는 수행이나 로드맵이 구체적으로 밝혀지지 않는 수행은, 비유하면 전등 없이 밤길을 걷는 사람처럼 시간만 헛되이 보내고 방황하는 수행이 되기 쉽다 하겠습니다. 그러나 금강경 16분은 이러한 수도자들이 헤매지 않게 하는 지침이 됩니다.

즉 어떤 수행이든 밝아지고자 하는 수행을 16분의 말씀 중 수지독송차경(受持讀誦此經)에 비유할 수 있으며, 수행을 할 때 맞닥뜨리는 여러 역경을 약위인경천(若爲人輕賤)에 비유할 수 있습니다. 특히 간화선 같이 수행의 로드맵이 밝혀지지 않는 돈적 수행을 하는 수행자에게 각종 역경이 일어나는 경우에, 선지식을 만나지 못하면 결국 낙심하여 공부를 포기하게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흔들리지 않는 수행의 마음을 지속할 수 있다면, 즉 역경에서도 부처님 향하는 마음이 흔들리지 않는다면, 고통을 받을 때마다 전생에 지은 각종 죄업이 하나하나 제거되며 머지않아 각종 역경은 다 사라지게 될 것이다.

드디어 선세의 죄업이 소멸됨과 동시에 역경도 사라지며 수행이 원만하게 이루어져서 결국 밝아지게 되느니라."

이렇게 금강경 16분을 이해할 수 있다면, 비록 선지식 없이 혼자 수행하더라도 각종 마장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고 벗어나게 되며, 마침내 견성성불의 대업을 이룩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16분은 수행자에게 수행 중 마장이 일어날 때 훌륭한 지침이며, 수행의 로드맵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수행의 로드맵은 수행자가 역경을 극복하고 밝아지는 데 꼭 필요한 가르침일 뿐 아니라, 각종 고난에서 벗어나기를 바라는 사람에게도 매우 도움이 되고 꼭 필요한 가르침이라 하겠습니다.

〈사회복지법인 바른법연구원 이사장〉



청운 스님의 생활속 '이뭣고' 수행

일체유심조(一切唯心造)와 '이 뭣고'

화엄경 사구게에 심여공화사(心如工畵師) 능화제세간(能畵諸世間) 오온실종생(五蘊實從生) 무법이불조(無法而不造)라는 말이 있다.

이는 "마음은 그림을 그리는 화가와 같아서, 능히 세상사를 다 그려내며, 오온이 다 마음으로부터 나온 것이어서 그 무엇도 만들어 내지 않은 것이 없다"는 말이다. '부처, 참나' 는 개념(槪念)이 아니고, 이름(名)이나 모양(色)에 있는 것이 아니다. 말(言)이나 문자(文字)로 들어 낼수 없는 '텅빈충만, 공적영지(空寂靈智)' 이다.

세상은 명색(名色)으로 존재(存在)하는 것이며, '나' 라는 것도 이름과 모양일 뿐 실체(實體)가 없는 환(幻)이다.

마음이 있기 때문에 나와 세상이 있는 것이며, 망심(妄心)이 없다면 나와 세상이 본래 있는 것이 아니다. 생노병사(生老病死)의 고통도 환일 뿐이다.

'심여공화사(心如工畵師)' 라는 말은 즉 마음은 그림을 그리는 화가와 같다는 뜻이다. '일체유심조(一切唯心造)' 의 심은 일체를 그려낸 망심이다.

'능화제세간(能畵諸世間)' 은 일체유심조와 같은 뜻으로 마음은 능히 일체세상을 만들어 낸다는 의미이다.

'오온실종생(五蘊實從生) 무법이불조(無法而不造)' 는 오온이 모두 마음따라 나온 것이어서, 색수상행식(色受想行識)이 모두 마음의 작용이라는 구체적인 내용이다.

무법이불조(無法而不造)라고 했다. 본무망심(本無妄心)이라, 마음은 본래 없는 것이지만, 만들지 못하는 것이 없다는 것이다.

이 말에는 불성, 불법, 법, 부처, 천지만물(天地萬物)을 비롯해 나(我) 또한 본래 있는 것이 아니라는 말이다. 일체유심조이기 때문에 동시에 본래무일물(本來無一物)이며, 그렇기 때문에 다만 마음의 작용인 일체유심조이다. 이 사실을 그대로 깨닫는 것이 바로 견성인 것이다.

"불성, 불법, 부처, 천지만물을 비롯해 나(我) 또한 본래 있는 것이 아니라는 말이다. '일체유심조' 이기 때문에 동시에 본래무일물(本來無一物)이며, 그래서 마음 작용인 '일체유심조' 이다. 이 사실을 그대로 깨닫는 것이 바로 견성이다"

하늘과 땅이 있어서 내가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에 의해서 천지만물이 창조된 것이라는 진리를 깨닫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화엄경의 핵심이다. 마음하나 일으켜 신구의(身口意) 삼업(三業)을 만들고, 마음으로 이 우주법계(宇宙法界) 모든 세상을 만들어 내며, 마음으로 삼독심(三毒心)을 일으키고 마음으로 삼학(三學)을 닦아간다.

마음으로 번뇌와 집착을 일으켜 육도를 윤회하게 되고, 마음으로 집착을 끊고 해탈(解脫) 열반(涅槃)의 세계로 나아가는 것이다.

마음자리 깨치면 텅빈 충만이며, 여여(如如)하고 적적(寂寂)한 부처요, 깨치지 못하면, 두두물물(頭頭物物) 산하대지(山河大地)가 천차만별(千差萬別)로 벌어지는 중생세계(衆生世界)이다.

그러나 중생이든 부처든 그 근본(根本) 성품(性品)은 하나이다.

법계의 성품을 관(觀)하라는 말은 바로 나의 근본을 살피고 나의 참 성품 즉 불성을 체득하라는 말이다. 법계의 성품이 바로 나의 성품이고, 법계의 근본이 나의 근본이다.

그 관법(觀法)이 '이 뭣고' 이며 번뇌와 집착을 끊어 열반의 세계로 이끄는 금강보검(金剛寶劍)이 바로 '이 뭣고' 인 것이다.

약인지심행(若人知心行) 보조제세간(普造諸世間) 시인즉견불(是人則見佛) 료불진실성(了佛眞實性)이라는 말을 마지막으로 음미해 보자.

"만약 어떤 사람이 마음이 모든 세간을 만들어 낸다는 것을 안다면, 이 사람은 바로 부처님을 친견해 부처님의 진실성을 아는 것이다"라는 말이다.

〈남양주 선재사 주지〉

승가전통 건강비법

마 가 목(원탕)



허산 대진스님
(용문산 참나선원)

강원도에는 옛부터 전해오는 속설에 노인이 마가목 지팡이를 짚으면 굽은 허리가 펴지고 아이를 못낳는 여인네가 방안에 마가목 가지를 두기만 해도 수태를 한다는 신령한 나무로서 지금도 승가의 선원에서 참선수도하는 스님들은 기력을 돋우기 위해 마가목 차를 드시고 있으며 산승이 비법을 전수받아 진귀한 마가목과 약초로 맑고 향기롭게 정성껏 달여서 (한달분 60봉, 두 재 분량, 한 박스) 요청에 의해 보내드립니다.

■ 1988년 11월 6일 오전 6시 40분
– KBS2 TV "건강하게 삽시다" 「강원도 오대산 승가비법 약초기행 마가목을 찾아서」 방영
■ 2000년 10월 25일 수요일 – KBS1 TV 아침방송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나무차 소개」 방영
■ 2010년 10월24일 일요일 – 오전7시20분 MBC TV "고향이 좋다" 「마가목」 효능방영
■ 2014년 7월 31일 목요일
– 오후7시30분 KBS-1 TV '한국인의 밥상' 경남 밀양 얼음골 「마가목」 건강식 방영
■ 2014년 10월 6일 일요일
– KBS-1 TV 오전 5시10분 '내고향 스페셜' 설악산 백담사마을 「마가목」 방영

건강하고 활기찬 생활을 위하여 마 가 목(원탕)

※계절이 바뀌면서 체질변화로 인해 항상 피로하고 노곤하며 기운이 없는 사람에게 활력이 생깁니다.
※시주하시는 불자님의 요청에만 보시합니다.

상담문의 011-9049-2848 (공휴일 및 야간전화 사절)

• 농협 : 227027-51-090791 (예금주 : 남궁성균) ※ 제방선원이나 수행스님께 대중공양 올릴 불자님 연락바랍니다 ※

청소년 심신수양을 위한 템플스테이

제 53회

골굴사 청소년 화랑수련회 여름캠프

원효스님의 열반 성지! 신라 화랑들의 기상이 담긴 선무도 총본산 골굴사에서
청소년들의 인성교육과 심신수련을 위한 **제 53회 화랑수련회 여름캠프**를 개최합니다.
21세기 새로운 리더로서의 자질을 기를 수 있는 신화랑 캠프! 자연속에서 공동체 수행생활을 체험하며,
호연지기를 기르고 몸과 마음을 튼튼하게 할 수 있는 청소년 화랑수련회와 함께 하세요.



■ 언 제 : **2018년 7월 29일 ~ 2018년 8월 18일 (3주간)**
■ 모집인원 : 교육 효과를 높이기 위해 1주간 참가인원을 60명으로 제한합니다.
매주 일요일 15시까지 입교. 토요일 12시 퇴교
■ 대 상 : 초등학생 ~ 중학생 (고교생은 평시 템플스테이 프로그램으로 참가)
■ 수련회비 : **1주 – 35만원 · 2주 – 70만원 · 3주 – 90만원**
(교재비 포함이며 수련비를 입금하셔야 예약이 확정됩니다.)
국민은행 823301-01-476572 (예금주 : 대한불교조계종 골굴사)
■ 준 비 물 : 세면도구 · 수건 · 필기도구 · 양말 · 운동복 · 운동화 등
(현금, 휴대폰, MP3 휴대 금지)
■ 예약 및 문의 : **TEL 054-775-1689 / 054-744-1689** 홈페이지 www.sunmudo.com

• **기본 프로그램**
선무도, 승마, 국궁, 다도, 민요, 불교강의, 108배
• **부모님께 효도마사지 실습 및 예절교육**
• **매주 색다른 경주문화유산 탐방 :**
감은사지, 문무대왕릉, 기림사, 경주국립박물관
양남 주상절리길 및 감포깍지길 탐방
• **자아성찰 :** 힐링 명상, 요가, 자자회



일 과 표 〈일과표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시간	내 용	시간	내 용
5:00	기상	13:00	독서와 사색
5:30	새벽 예불 / 좌선 / 걷기명상	14:00	요일에 따라 선무도, 승마, 국궁, 다도, 민요, 효도마사지, 예절교육, 호신술, 트래킹
6:20	아침 공양 (주1회 발우공양)	16:30	울력 (도량 청소 및 정리)
9:00	원어민 영어 수업/불교 강의	17:10	저녁 공양
10:00	선무도 수련과 힐링 명상	18:30	저녁 예불
11:00	108배	19:00	자아성찰 및 참회록 쓰기, 방학 숙제하기
11:40	점심 공양	21:00	취침

1500년 전통사찰 · 외국인 7천명 이상이 참여하는 템플스테이 도량!!

대한불교조계종 골굴사 선 무 도 화 랑 학 교

본 프로그램은 종교를 초월한 청소년 인성교육을 목표로 합니다